

양고기일일시장뉴스 (2026.10.09)

(주)로드프리미엄 | 대상: 호주 / 뉴질랜드

오늘의 핵심

- 1. 호주 무역용 양 지표(NTLI)는 1,088 A\$/kg로 전주 대비 2%, 전년 대비 8% 내렸고, 이번 주 가공업체 가격은 84센트 떨어졌습니다.
- 2. 미국이 15억 달러 규모의 호주산 양고기에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며, 미국 국제무역위원회(ITC) 공청회가 11월에 열립니다.
- 3. 뉴질랜드 양 스케줄(17.5kg YX 북섬)은 두당 NZ\$209로 4주 전과 같은 수준이지만 1년 전보다 18% 높습니다.
- 4. 뉴질랜드 양고기 수출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 근처이며, Westpac은 2027년까지 높은 수준이 유지되다 소폭 내릴 것으로 봤습니다.
- 5. FAO 양고기 가격지수는 9월 보합으로, 전 세계적으로 공급은 빠듯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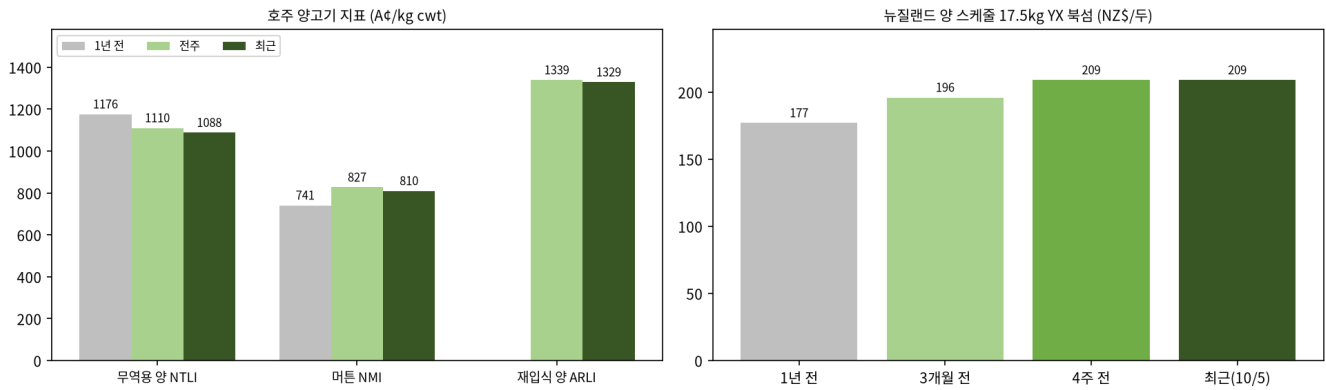
국가별 오퍼가격 참고 지표

실제 한국향 오퍼가격은 비공개이므로, 아래는 산지 경매가, 가공업체 스케줄, 가격지수 등 공개 참고 지표입니다.

국가	지표	최근 가격	변동	출처
호주	무역용 양 지표 NTLI (9/30 주간)	1,088 A\$/kg cwt	전주 -2%, 전년 -8%	ABARES
호주	머튼 지표 NMI (9/30 주간)	810 A\$/kg cwt	전주 -2%, 전년 +9%	ABARES
호주	가공업체 무역용 양 가격 (10/8 보도)	1,086 A\$/kg	-84¢	Ground News
호주	AuctionsPlus 재입식 양 지표 ARLI (10/7 주간)	1,329 A\$/kg cwt	-10¢	AuctionsPlus
호주	AuctionsPlus 교잡종 양 (10/7 주간)	580 A\$/kg, A\$219/두	전체 평균 -A\$16/두	AuctionsPlus
뉴질랜드	양 스케줄 17.5kg YX 북섬 (10/5)	NZ\$209/두	4주 전 209, 1년 전 177	interest.co.nz
뉴질랜드	양 스케줄 17.5kg YX 남섬 (10/5)	NZ\$205/두	4주 전 205, 1년 전 172	interest.co.nz
뉴질랜드	가공업체 양 스케줄 14.1~25kg (10/4 주)	NZ\$12.10/kg	변동 없음	Cabernet Foods
뉴질랜드	Westpac 양고기 가격지수 (10/7)	686	12월 681 전망	Westpac Agri Bites
글로벌	FAO 양고기 가격지수 (9월)	보합	0%	Meatingplace

국가별 가격 변화 그래프

양고기 국가별 가격 변화



자료: ABARES, AuctionsPlus, interest.co.nz (ARLI는 1년 전 값 미표시)

국가별 주요 뉴스

호주

1. 봄철 출하 집중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NSW 출하가 줄고 서호주·태즈메이니아 공급이 늘면서 가공업체 무역용 양 가격이 84센트 내린 1,086센트/kg를 기록했습니다. (Ground News)
2. 출하 증가와 수출 부진이 겹쳐 중량 양 가격이 kg당 53센트 내리는 등 시장이 크게 조정됐습니다. (Ground News)
3. 미국이 15억 달러 규모의 호주산 양고기 관세를 검토하자, 돈 패럴 통상장관은 연금기금의 미국 양고기 시설 투자를 제 안했지만 연금업체가 반발했습니다. ITC 공청회는 11월 예정입니다. (Ground News)
4. AuctionsPlus의 10/7 주간 출품은 77,300두로 29% 줄었고, 낙찰률은 78%로 15%포인트 올랐습니다. (Auctions Plus)
5. ANZ는 호주산 양고기 수출이 전년보다 약 11% 적고, 중동 수요는 크게 줄었지만 아시아·미국 수요는 견조하다고 밝혔 습니다. (ANZ)

뉴질랜드

1. Westpac은 뉴질랜드 양고기 수출가격이 공급 제약과 유럽·영국·북미 프리미엄 시장 수요로 사상 최고 수준 근처에 있 다고 평가했습니다(2026년 연평균 지수 +14.4% 전망). (Westpac Agri Bites)
2. ANZ 상품가격지수에서 9월 양고기 가격은 소고기와 달리 강세를 보였습니다. (ANZ)
3. Beef + Lamb NZ는 중국을 뉴질랜드 최대 양고기 시장으로 보며, 물량과 다양한 부위 소화에 중요하지만 가격 상승 여 지는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. (Beef + Lamb NZ)
4. Bidfood는 엘니뇨로 새 시즌 가공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고, 좋은 겨울 날씨와 양호한 출산율이 공급을 뒷받침한다고 전했습니다. (Bidfood NZ)
5. 영국·유럽 시장에서 호주산이 뉴질랜드산에 비해 받던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. (The Country)

한국 수입업체 관점 시사점

- 호주산: 산지 가격이 전주 대비 약세이고 출하가 늘고 있어 단기적으로 한국향 오퍼 인하 여지가 있습니다. 미국 관세가 확정되면 미국향 물량이 아시아로 돌아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으므로, 11월 ITC 공청회 결과를 확인하고 계약 시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.
- 뉴질랜드산: 스케줄이 전년 대비 18% 높고 수출가격도 최고 수준이라 한국향 오퍼는 강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호주 산 비중을 늘리는 대체 조달을 검토할 만합니다.
- 공통: 엘니뇨로 호주·뉴질랜드 모두 조기 출하가 늘 수 있어 연말~1분기 선적분은 가격이 다소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

한 줄 요약

호주산 양고기는 출하 증가와 미국 관세 우려로 약세, 뉴질랜드산은 최고가 수준에서 보합이어서 당분간 호주산 위주 매입이 유리합니다.